

장애·종교 뛰어넘어 “마음 교감”

한국농아인협회 정치아카데미 수강생들 표창사서 템플스테이



표창사 템플스테이를 마친 한국농아인협회 회원들이 수화로 '사랑해요' 라고 말하며 활짝 웃고 있다.

이심전심(以心傳心). 말없는 가운데 엄화사중의 미소로 마음과 마음을 주고 받았던 부처님 당시의 교감이 청각장애인들의 마음속에 되살아나게 한 뜻깊은 템플스테이가 열렸다.

표창사(주지 청운)와 한국농아인협회(회장 변승일)가 1월 14일~15일 표창사에서 농아인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마련한 것이다. 표창사 주지 청운 스님의 장애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한국농아인협회 부회장이 박상훈씨와 주지 스님의 인연이 연결고리가 됐다. 한국농아인협회 차원에서 사찰을 찾아 템플스테이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농아인들은 제1기 농아인 정치아카데미 수강생들로 각 지역 농아인협회 임원단들이 대부분이었다. 농아인들의 정치 참여나 사회전반에 대한 이

해를 높이는 강좌로 마련된 정치아카데미 제5강으로 청운 스님의 '유구무언' 강의와 '달마야 우리하고도 놀자'라는 제목의 표창사 템플스테이가 함께 진행됐다.

60여 명에 가까운 이날 참가자 중 80%가 기독교 신자. 처음엔 어색해하거나 낯설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정치·경제·문화·종교 등 사회 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농아인들은 그만큼 불교

80% 기독교 신자, 수화 통역 어려움 겪어 다도 참선 발우공양 등 불교문화에 매료

를 접할 기회가 없었고 불교에 대한 오해도 많았다. 게다가 불교전문용어 통역이나 사찰 문화를 잘 아는 수화통역사도 드물어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수련복을 입고 간단한 사찰 예절을 배운 뒤 사명대사의 호국 정신이 깃든 경내 이곳 저곳을 둘러보며 참가자들의 생각과 마음이 조금씩 변화했다. 특히 앞서 들었던 청운 스님의 '유구무언' 강의가 경내를 돌아보는 내내 새록 새록 마음에서

되살아난다. 둘째 날, 2만 4천평에 이르는 대나무숲 길을 걸을때는 대나무숲에 불어오는 바람이 마음속 시름까지 시원하게 날려 버린다. 특히 다도, 참선, 발우공양 등 평소 접할 수 없었던 불교전통문화의 매력이 농아인들의 깊은 마음을 흔들어 깨웠다.

표창사 박물관을 둘러본 변승일(49) 한국농아인협회 회장은 "종교가 불교는 아니지만 불교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이해를 하게 됐다. 앞으로 불교가 청각장애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장애를 뛰어넘어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이해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수화로 소

감을 밝혔다. 이번 템플스테이를 준비한 김상훈 한국농아인협회 부회장은 "듣고 말할 수는 없다 해도 세상과의 소통은 모든 생명체의 기본 욕구"라며 "처음으로 사찰을 찾아와 마음을 나누고 부처님의 미소를 만났으니 앞으로 다양한 통로를 통해 대화와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055)352-1070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현익채

부산 금정중학교 교법사



부산불교계를 가로로 세로로 꿰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현익채(55·무심) 금정중학교 교법사다.

그동안 부산의 크고 작은 수행단체의 사무국장, 총무 등 실무 경력을 거쳐 왔고 청소년 포교 최일선에서 뛰어들며 불교계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권의 자료집을 펴냈다.

그 중 748개의 사암과 431개의 불교단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1993년 펴낸 <부산불교총람>은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시도로 한국불교총람 탄생의 촉매제가 됐다.

이후 현법사의 손을 거치면 자료가 된다는 통설이 생길 정도로 부산불교계의 역사와 현황을 정리하는 작업이 현법사의 몫이 됐다.

불교의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심정으로 혹은 수행단체간의 연대와 교류로

월에 달하는 자료수집이 계속되면서 불구적인 식사, 수면부족 등이 몸을 상하게 한 것이다.

꼼꼼함과 완벽을 꾀하는 현법사의 성격이 병의 원인으로 작용했겠지만 그 성격은 아직도 변함없다.

<부산불교총람> 2, 3권을 안만드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고, 이제는 절고의 욕 넘치는 후배들이 앞장서면 저는 뒤에서 돕겠다고 대답하죠. 능력있는 젊은 인재들이 불교계에 많아져서 저는 뒤에서 도우면 좋겠습니다."

현법사는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산의 여러 장학회에서 단순한 장학금 지급에 치중하지 말고 전문 종무원, 행정가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는게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부산불교를 통째로 꿰뚫고 있는 현

부산 불교사암·단체 총정리 '불교총람' 발간

"부산불교 중흥이라는 화두 하루도 안 놓아요"

불교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원력으로 자료에 매달렸고 현법사의 자식같은 자료집이 하나 둘 세상사람들에게 선을 보였다. 지금까지도 전국각지에서 그 책을 찾는 이들이 있을 정도로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1975년 <부산시 대학생불교연합회 10년사>를 시작으로 <부산불교안내 1·2> <부산불교인명록> <간추린 불교 50년사> 등을 펴냈고 <청소년 불교 길잡이> <중등학교 종교 교육에 관한 연구> <불자 신행의 길잡이> <부처님 만남의 기쁨이여> 등의 저서와 논문 등이 쏟아졌다. 자료가 전무했던 불교계에선 들도 없이 귀한 자료였다.

"5~6번이고 만났을때까지 찾아 가서 자료를 파악하고 때론 전화로 시도 때도 없이 했죠. 요즘처럼 핸드폰도 없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내려서 공중전화에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부산불교총람>이 나온 뒤 현법사는 위암으로 수술을 받고 힘든 고비를 넘겼다. 연등불교화학회 지도법사, 부산불교중등학생연합회 총무, 불심홍법원 사무국장 등의 1인 다역에다 6~7개

법사지만 한가지 질문을 던지면 한참 만에야 대답이 돌아온다. 그만큼 신중하다. 1969년 법사에서 첫 수련회에 참가한 이후 '불교가 무장정권 좋았다'는 현법사의 원력은 무엇일까?

"단 한번도 부산불교 중흥이라는 화두를 놓은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부처님 가르침 만난 것을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하고 전도전법이 최상의 공덕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수행에 더욱 힘써서 부처님 근본 가르침대로 실천하면서 살고 싶어요.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상대를 부처님처럼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죠."

천미희 기자

"업식 씻고 극락왕생 기원합니다"

대원정사 '민수 49재' 봉행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49재는 부산 대원정사에서 일체 모든 준비를 도맡아 민수와 인연을 아름답게 회향해 훈훈함을 더했다. 천미희 기자

어린이법회 교사 대만 연수

대불어 경남지구

어린이법회 선생님들이 1월 7일부터 11일까지 대만으로 특별한 여행을 다녀왔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경남지구(회장 지광, 이하 대불어 경남지구) 소속 어린이 법회 담당 교사들 중 경력 5년 이상 된 교사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여행은 대불어 경남지구와 대상 교사들이 소속된 사찰 주지 스님들이 마음을 모으고 경비를 충당해 마련한 여행이라 더욱 의미가 깊었다.

이번 여행은 어린이 포교에 관심과 뜻을 가지고 오랫동안 포교 현장에서 몸 담았던 이들을 격려하고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지도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계기가 됐다.

지도교사들은 4박 5일 동안 종대산사, 춘추각, 불광산, 아류해양공원, 고궁박물관 등을 둘러보며 자신이 맡고 있는 법회에 참석하는 아이들에게 보여줄 사진 자료와 내용 수집에 열성을 보였다.

이번 여행을 다녀온 황정민 대불어 경남지구 사무국장은 "어린이 포교 현장에 함께 몸담고 있는 지도교사들이 의견을 나누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경남사회복지사업 수업

경남지역 27개의 불교사회복지법인과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2006년 경남지역 불교복지의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안을 결정했다.

1월 17일 경남사회복지협의회(회장 심희)가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신년대회를 봉행하면서 2006년 한해 동안 '협의회 사무국장 단합대회, 협의회 중간관리자 슈퍼비전 교육, 우수사례발표회 등의 굵직한 공동사업안을 의결했다.

경남사회복지협의회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각 기관과의 연대와 정보 교류를 통해 경남 지역 불교복지의 질적, 양적 발전을 이룩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월 한 차례 정례 모임을 갖기로 결정했다. 월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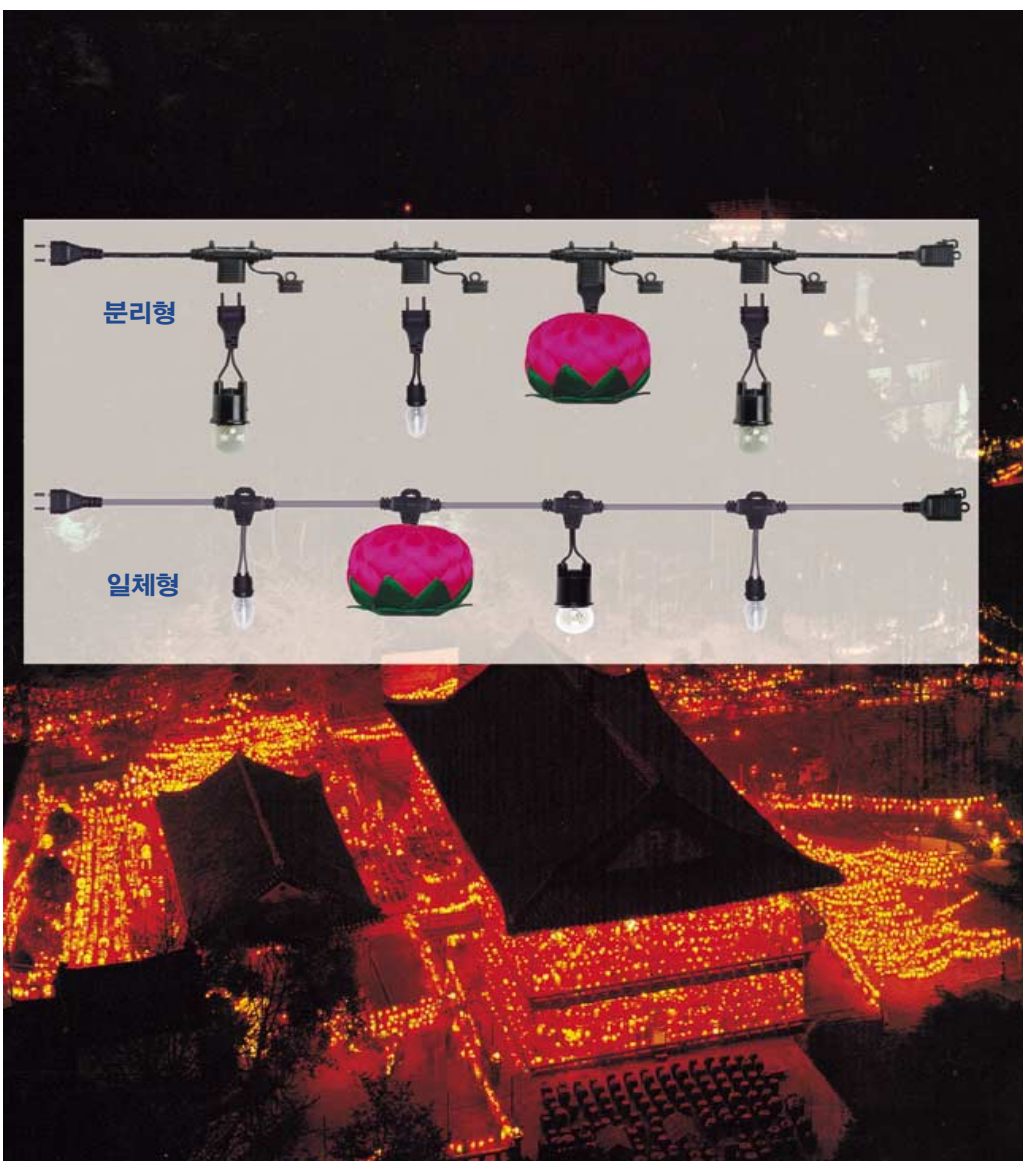
임은 각 기관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우수 프로그램 등을 체험해보기 위해 각 기관을 돌아다니며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27개 기관 연합 체육대회 등 불교 복지 기관의 연대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천미희 기자

미륵종, 임시중앙총회 열어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긴급임시중앙총회의장 지은스님이 1월 18일 경남 창원시 문복정사(총회의장 주석사)에서 열렸다(사진). 총회의원 22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종헌종법의 개정과 종단발전 등을 위한 기금모금, 복지법인 이사회 운영 등의 안건을 토의했다. 미륵종은 이날 논의된 사안들을 토대로 중앙총회를 열기로 했다. 영민 경남서부지사장

광주 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자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등 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사찰전구 (정품)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힐라멘트가 6배

(특 힐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 사찰용 (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 건전지용 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근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